2017 인문상담학연구소 문학상담 특강

상담,
문학을 만나다

강사 | 이혜성 총장

일시 | 6월 23일(금) 14시~16시

장소 | 본관 304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인문상담학연구소

< 목 차 >

I. 상담과 문학

1. 상담에 대한 나의 신념 ---------------------------------- 05

2. 나와 문학상담 -- 06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담과 문학상담에 대한 나의 고뇌 ------ 07

4. 나의 상담 이력서 -------------------------------------- 09

5. 나의 상담인생 -- 10

II, 상담, 문학을 만나다

1. 인문상담학: 문학과 철학과 상담학의 융합 ------------------ 13

2. 문학과 철학과 상담의 고유성과 장점의 상호 인정 ----------- 14

3. 왜 <상담, 문학을 만나다>인가? -------------------------- 16

4. Yalom에게서 배우다 ----------------------------------- 23

5. 문학상담 프로그램의 실제 ------------------------------ 24

[부록] 2017년 1학기 <실존문제와 문학상담> 과제 --------------- 31

상담, 문학을 만나다

I. 상담과 문학

1. 상담에 대한 나의 신념

(1) 상담학은 과학이고 예술이며, 교육이다.

상담학은 과학적인 새로운 연구방법, 예를 들어 질적인 방법으로 상담 결과를 검증·활용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발달하고 있는 **과학**이고

상담학은 개인의 독자적 능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독특하고 진지하며 정직한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기를 구축해가는 **예술**이며,

상담학은 인간이 인간적 성장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갈등, 선택, 확신을 해결하고 지탱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내는 **교육**의 핵심을 내포한다.

(2) 상담은 정답이 없는 "나와 너와 세상"에 대한 물음의 여정(旅程)이다.

사람이 항상 해결해야하는 숙명적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나와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답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두가 독자적인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야 한다.

(3) 상담은 과거에 내가 살아낸, 현재 살고 있는, 미래에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이다.

삶은 상담의 시작이고 상담 안에 삶의 이야기가 있다. <순간의 삶>과 <삶의 순간>이 이어져서 인간의 삶은 형성되고 상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도 자신의 **분석적 상상력**을 동원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자기 과거를 재현하고 있다고 믿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가 내담자의 관점에서 구성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4) 상담은 내가 '나'를 <지금-여기>에서 만나는(Meet me here and now)과정이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 내 속에 있지만 내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나', 이러한 여러 모습의 '나'로 인해 나는 갈등과 좌절과 우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금-여기>**에서 내가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명료화(clarification)**'와 '**직면(confront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상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5) 상담은 '삶 속의 삶'을 발견하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신의 언어'를 되찾는 작업이다.

상담은 20세기 인류지성이 발전시킨 최고의 지적 결정이며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상담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내는 힘과 지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상담은 인간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인 것이다.

2. 나와 문학상담

오래 전부터 나는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유와 고뇌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상담을 하고 싶었다. 자기 자신과 남에게 진지하고 정직하며 **<지금-여기>**에 충실하면서 다가 올 <앞 날>을 희망과 열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는 보람있는 여정(旅程)이 곧 상담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담은 어떤 병리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그 사람이 지닌 부정적인 증상을 제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상담의 요체는 한 사람이 자신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 왔으며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라는 인문적 자기성찰을 하도록 이끄는 **안내자**이며 **격려자**이며 **동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다루는 **인문적 자기성찰**은 곧 인문학의 핵심주제이기 때문에 인문학의 핵심과 상담의 목표는 넓은 의미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나는 상담에 인문학을 융합한다면 상담의 과정이 더욱 깊이 있고 차원 높은 자기성찰과 자기성장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상담은 언어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어예술인 문학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학이라는 깊고 넓은 영역에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측면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는 상담을 문학적으로 하고 싶은 꿈을 오래 전부터 품어왔다. 동시에 '**문학**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상담**이라는 배를 띄우고 무리 없이 항해를 하려면 어떤 장비를 갖추어야할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문학상담**의 배경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에서는 문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학회 차원의 모임과 센터가 '문학치료', '시치료', '독서치료', '이야기치료'등의 이름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내가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문학상담'**은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라는 단어에는 겉에 나타나는 '증상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의학적인 함의가 있으나 '상담'이라는 단어는 **'성장'**과 **'전인적 발달'**에 중점을 두는 교육적인 함의를 내포한다. 바로 이 점이 문학상담의 고유한 특성이며 이러한 '문학상담'은 이혜성의 용어이다.

문학상담은 상담의 새 지평을 열어보고자 하는 특별한 시도이지 기존의 상담을 배척하거나 기존의 상담과 전적으로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문학상담은 기존 상담을 계승하는 동시에 문제해결 혹은 과학적인 방법론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현 상담의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상담은 문학의 측면에서도 재정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데 문학상담을 통해 문학은 텍스트 밖에서 실천될 수 있으며, 그것의 일부가 지닌 사변성 또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학상담은 문학적으로 실천되는 상담이자 상담 안에서 실천되는 문학이라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학을 경유하며 한층 더 고양된 상담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상담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면,

“**문학상담**의 주어는 문학이 아니라 **상담**이다. 문학상담은 문학비평이 아니며, 문학상담자는 문학전문가가 아니라 **상담전문가**이다. 문학상담의 목표는 문학작품을 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언어활동(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참자아**를 찾고, 아울러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언어**를 찾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 즉 문학상담은 인간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숨어 있던 자신을 찾는 일이며 자신의 언어를 되찾는 과정인 것이다. 문학상담은 상담의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문학상담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까지 상담학이 성취한 다양한 상담이론을 계승하고 상담관계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수용하는 토대 위에서 상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자 하는 시도이다.”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담과 문학상담에 대한 나의 고뇌

첫째, 상담의 근본목표가 상담의 실제과정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상담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이지만 상담이 내포하는 근본 뜻은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담을 아프거나 약하거나 심하게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내담자들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삶에서 당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다.

그러나 나는 상담의 근본 목표는 각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도와주는 **인문학에 기반을 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담은 ‘되고 싶은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즉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전문영역으로 발전해야 하는 학문인 것이다. 상담의 근본목표와 현실적인 목표 사이의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나는 늘 고뇌하고 있다.

둘째,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는 상담 특유의 연구 방법론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상담은 아직도 과학이 되려고 진통을 겪고 있는 학문의 하나로 간주된다. 상담자들은 상담연구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상담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자는 공포와 우울증에 빠진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반면에 상담연구자들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는 병인을 찾아내고 상담이 효과가 있을 때 왜 효과가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에 반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인간의 정서적 갈등을 주로 다루면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자와 상담연구자 사이에는 상당한 높이의 벽이 놓여 있다. 상담의 효과는 내담자의 자기보고(self-report)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검증하느냐가 항상 문제시 되어왔다. 현재는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상담과정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변화, 내담자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기

술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새로운 연구 방법이 확립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어떠한 기술이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단일한 방법만으로는 다양한 내담자들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론은 없다. 상담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의 종류가 300여 가지나 된다는 최근의 조사는 이러한 상담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상담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은 실용적인(practical) 학문이므로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잃고 좌절하는 개인에게 상담의 근본 목표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여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특수한 연구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나는 늘 고뇌하고 있다.

셋째, 상담에 종사하는 전문인이나 상담을 공부하려는 초보자들을 포함해서 문학상담을 체험해 보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문학상담이 무엇이냐?', '문학은 어렵다'라는 질문을 하면서 '문학상담'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문학상담을 경원시(敬遠視)하고 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문학에 대한 선입견, 즉 문학은 특정인(문학자)이 하는 것, 어려운 것, 학문의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이자 '문학상담'이라는 명칭에 대한 생소함과 막연함, 혹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이미 기존의 상담학계에서 학위를 받아 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훈련을 받고, 더 나아가 교육수련생을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많은 상담교수와 상담자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문학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열어가야 한단 말인가?', '현재로서는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에서 상담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와서 문학을 어떻게 새롭게 공부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학상담의 요체는 기존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존재의미와 존재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문학상담에서 의미하는 '문학'은 문학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또한 '문학활동'은 작품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언어생활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다.

4. 나의 상담 이력서

나는 한국상담학계의 풍토에서는 이단자라 부를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성 명	이혜성

학력사항	
~ 1958	이화여고 (문학소녀)
~ 1962	서울사대 국어과 (문학교사)
~ 1973	버지니아대학교 (상담자교육)

경력사항	
1974 ~ 1977	서울여대 교수
1977 ~ 2000	이화여대 교수
1997 ~ 2005	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
2010 ~ 현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논문	논문지도
한국여자교수의 성취동기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청소년의 기성세대관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대한 연구	석사 박사

저서	수필집	편지모음
여성상담 문학상담 삶 사람 상담	사랑하자, 그러므로 사랑하자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어라	한국청소년상담원(2001, 2002, 2003, 2004)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역서	Yalom 번역
완전한 카운슬러(1980) 존재의 심리학(1981) 인간적 성장(1982) 성장심리학(1982) 남녀의 행동연구(1993) 문화와 신경증(1994) 다섯명의 치료자와 한 명의 내담자(1997) 좋은 엄마 되기(2008)	쇼펜하우어, 집단심리치료(2006) 폴라와의 여행(2006) 카우치에 누워서(2007) 보다 냉정하게, 보다 용기있게(2008) 얄롬의 심리치료와 인간의 조건(2008) 매일 조금 더 가까이(2010) 스피노자 프로블럼(2013)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2015)

5. 나의 상담인생

나는 1958년에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에 진학했다. 그해 사울사대 국어과의 경쟁률은 8대1이나 되었으므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는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뻤으나 대학교 신입생의 생활은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2학년에 진급하면서 뭔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의욕은 간절했으나 교과내용이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만 치우쳐있다는 불만이 컸다. 그러다가 3학년 때 4.19가 터져서 놀라고 불안했다. 그러나 그 때 미국서 갓 돌아오신 김기석 교수와 이영덕 교수로부터 counseling과 guidance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배우면서 신학문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 유학에 대한 아득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4학년에 진급하자 이번에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나라 일을 걱정하는 마음과 졸업 후의 진로로 초조했던 나에게 '실력 제일'의 슬로건을 높이 들었던 혁명 정부는 매우 신선해 보였다. 여러 가지의 혁신이 과감히 진행되면서 우리 학년은 대학에서 정규적인 4년간의 학위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국가학사 자격고시를 치러야 했다. 그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1962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과 더불어 곧 경동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여선생을 처음으로 맞게 된 남자 중학교에서 나는 희귀동물(稀貴動物) 취급을 받으면서 매일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긴장하기는 했으나 순수한 즐거움과 보람도 느끼면서 2년을 지냈다. 그 후에 모교인 이화여중으로 전근하여 3년 동안 총명한 여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 교단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보낼 수 있었다. 발랄하고 싱싱한 생명력이 넘치는 어린 여학생들을 앞에 놓고 나는 나 자신이 중학교 학생인 양 그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냈다. 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표현력에 감탄하면서 사범대학 국어과 출신의 정신을 살려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교육과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문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 사이에 나의 동창생들은 속속 결혼을 하거나 유학을 떠나고 있었다. 그제야 나 혼자만 제 자리에서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뒤늦은 자각으로 불안해졌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대학 안내서를 수없이 뒤적이며 counseling전공 학과가 있는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냈고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하다가 마침내 메사추세츠의 휫치버그 주립대학(Fitchburg State College)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내가 서울을 떠난 1968년 1월22일은 공교롭게도 김신조 일당이 서울에 잠입한 바로 그 다음날이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다. 나를 태운 NW비행기는 오후 4시에 이륙했고 7시에는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나의 비행시간이 하루라도 늦었더라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5년 동안 Fitchburg State College와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상담과 상담자 교육을 공부하였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일을 보다 훌륭히 이루어 내려는 미국인들의 부단한 창의성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남을 돕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협조적인 생활 태도를 배웠고, 사적인 감정이나 아첨 따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 대로 인정하는 학문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아름다운 학교 캠퍼스, 중후하고 품위 있는 전통, 고귀한 아카데미즘의 실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지성의 만개(滿開).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사소한 일에도 감격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도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원했던 공부를 했고 1973년 상담자 교육으로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상담학의 철학과 과정과 목표에 매료되어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자 나는 이 학문을 한국의 대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숨은 능력을 대발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상담학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이론, 인간과 인간이 이룩하는 섬세하고 신뢰로운 상담학의 과정과 목표를 우리말로 신나게 강의하고 싶은 소망으로 내 마음은 뛰었다. 감사하게도 나의 이 꿈이 이루어져서 1974년부터 3년간 서울여대 교수, 1977년부터 23년간 이화여대 교수, 1998년부터 7년간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2010년부터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오늘날까지 상담에 관한 일을 해오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다.

지난 40여년동안 상담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내가 쌓아온 상담에 대한 근본 신념은 상담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인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학문이며 나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상담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삶 속에 응축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자기다운 삶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 자기 언어를 찾아주는 섬세한 학문이다.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채로운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나는 상담학과 문학을 융합하는 '문학상담'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학상담은 문학의 특성을 살려서 '문학적'으로 하는 상담이다. 문학적으로 하는 상담이 가능한 것은 문학 속에 상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예술인 문학은 구체적인 묘사로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상담은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문학과 상담을 융합하여 문학적으로 실행하는 상담은 더욱 깊이 있고 차원 높은 자기성찰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문학상담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 동문 문집, 2016)

II, 상담, 문학을 만나다

1. 인문상담학: 문학과 철학과 상담학의 융합

○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의미를 천착하는 문학, 역사, 철학의 영역을 포함한다. 인류역사의 보편성을 관통하는 가치관을 이어가는 학문적 전승을 지키면서 인문학은 '인간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기성찰의 학문이다.

○ **문학과 철학**은 인문학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공존하면서 인류 역사가 기록될 때부터 인간지성의 고급활동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잘 쓰인 철학이 문학이고 잘 못 쓰인 문학이 철학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학과 철학의 만남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문학작품 속에 깃든 철학사상을 탐색하고 철학사상 속에 표현되는 문학을 읽어내는 과정은 철학이나 문학 강의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 있는 주제이다.

○ **상담학**은 인간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능력을 발굴하고 인간의 좌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20세기 초에 발달하기 시작한 학문이다. 상담학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게 하는 힘과 지혜와 기능을 내포하며, 자신이 참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문학적인 근본 핵심을 널리 활용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 **인문상담학**은 이러한 문학과 철학과 상담학을 한 자리에 모아보는 과감한 시도이다.

○ **문학과 철학과 상담학의 기본주제는 인간 삶의 내용이다.** 같은 근본주제를 지닌 이 학문들을 연계하면 더 좋은 인간의 삶을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박한 바람으로 문학과 철학과 상담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문학과 철학, 문학과 상담, 철학과 상담을 상담자의 특별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상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 문학과 철학의 상호융합은 학계의 많은 연구로 인해 이미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또한 철학과 상담의 만남 역시 독일의 아헨바흐 교수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철학함"의 방법을 기초로 하는 **철학상담**은 국내에서도 그 이론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반면 **문학과 상담의 만남**은 의외로 생소하게 느껴지는 용어이다. 현재로는 문학의 치유적인 특성에 집중하여 '문학치료', '시치료', '이야기치료' 등과 같이 '상담'이 아닌 '치료'라는 용어가 많이 보급되어 왔다.

○ 그러나 나는 '상담'과 '치료'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문학상담'**이라는 용어를 창조하여 문학과 상담의 만남을 설명하고자 한다. '문학상담'이라는 용어는 2010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초대총장인 이혜성이 처음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상담의 본질은 인간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며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학상담은 치료보다는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나는 보다 나은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는 문학과 상담의 만남을 '문학상담'이라 명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2. 문학과 철학과 상담의 고유성과 장점의 상호 인정

‘몽테뉴의 슬픔의 탐구’에 나오는 한 이야기 (양윤덕, 문학과 철학의 향연 p.7~10 참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집트의 왕 프삼메니투스가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혔을 때, 사로잡힌 자기 딸이 노예복장으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그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울부짖는데도 그는 땅바닥을 응시한 채 말없이 꼼짝 않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자기 아들이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꼴을 보고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부하 한 사람이 포로들 무리에 섞여 끌려가는 것을 보더니 머리를 치면서 대성통곡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왜 마지막 경우에 슬픔을 터뜨렸을까?

캄비세스가 프삼메니투스를 보고는, 어째서 그가 아들, 딸의 불행에는 마음이 격하지 않고 있다가 부하의 불행은 참아내지 못했느냐고 묻자, “이 마지막 불행은 눈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앞의 두 사건은 마음을 표현할 모든 수단을 넘어선 것이오.”라고 답했다고 한다.

● 슬픔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철학적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해당하는 본질, 즉 현상들의 차이 너머에 있는 불변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들의 다양성 밑에 있는 보편적인 것인 ‘슬픔 자체’는 모든 경험을 초월한 곳에서 그 자체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체험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래서 슬픔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 무엇이다.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슬픔과 표현할 수도 없는 슬픔이 같은 슬픔인가? 이 슬픔과 저 슬픔, 나의 슬픔과 너의 슬픔은 같은 것인가?

● 이와 달리 문학에서는 슬픔의 다양한 차이들에 주목한다. 이 슬픔과 저 슬픔의 차이를 강조하고 모든 슬픔이 저마다 다르다고 보기에 하나하나의 슬픔은 낱낱의 것이 된다. 문학적 공간에서 슬픈 사건들은 독자적 가치를 갖는다. 슬픔의 본질을 앞세워 참된 슬픔과 거짓된 슬픔을 구별하지 않는다. 춘향의 슬픔과 줄리엣의 슬픔은 다르다. 한 슬픔과 다른 슬픔은 교환할 수 없고 이 슬픔이 저 슬픔보다 더 참되거나 완전할 수도 없다.

문학은 슬픈 사건들의 장에서 ‘단일한 슬픔’을 창조한다. 슬픔 하나하나는 본질 없이 차이들의 연대를 형성하면서 슬픔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이다. 슬픔들의 차이는 나름의 분포를 이루면서 어떤 경우에도 동일성의 틀로 환원되지 않는다. 하나의 슬픔이 아니라 ‘슬픔들’이 있을 뿐이다. 오늘의 슬픔은 어제의 슬픔을 되풀이 하지 않으며 예견된 내일은 슬픔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는 ‘슬픔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슬픔은 어떻게 표현되는가’이다. 슬픔은 본질의 무게가 아니라 독특한 상황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가에 따라서 생명력을 지닌다. 단 하나의 슬픔을 되풀이 할 뿐인 슬픔의 본질주의는 얼마나 따분하고 고집스러운가? 문학적 ‘슬픔들’은 서로 어울려 차이들의 장을 조직하고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얻는다.

● 철학은 개념과 보편성만을 추구하며 무너지지 않을 진리의 성을 쌓고 문학은 다채로운 사건과 상황의 질문들에 나름대로 답한다. 이를 통해 삶의 성을 쌓고 허무는, 그러면서 울고 웃는 문제적 주인공들의 잔치가 펼쳐진다.

○ 그렇다면, 상담에서는 어떤가?
상담에서는 슬픈 일을 경험한 개인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상담은 '그 파고드는 슬픔으로 그는 얼마나 괴로운가?', '슬픔으로 인한 정서, 의지의 궤멸을 그가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허황되고 무책임한 격려는 금물이며, 상담자의 진정한 자신(자아)이 슬픔을 당한 개인과 온전히 같이 있어주어야 한다. 상담자는 무조건적으로 그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를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웅대한 슬픔과 좌절, 분석적인 사고와 표현적인 감성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그 무엇, 말하고 싶으나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 무엇을 탐색한다. **상담의 기본 전제는 누구에게나 깊은 마음속에는 그 무엇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의 잃어버린 언어와 능력을 찾아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와 과정이다. 그가 잃어버리고 있는 말은 곧 그의 주체성이고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이다. 그래서 상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여정과 같다. 상담은 문학과 철학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상담의 여정에 철학과 문학이 융합되면 그 울림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인 광대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래서 인문상담학은 광대한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학은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표현을, 철학은 보편타당한 본질을, 상담은 개인에게 집중**하여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철학이나 문학이 분석적이고 사변적이라면 상담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한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철학적인 사색과 질문**이 필요하고 **문학적인 표현과 개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노력이 상담의 과정을 더욱 풍요롭고 차원 높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서 진정한 상담자는 "마음을 표현할 모든 수단을 넘어선 불행, 즉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불행을 같이 체험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상담자는 내담자와 감정이입적인 이해**(empathetic understanding), **무조건적인 수용**(ubconditional acceptance), **조화로움**(congruence), **불변성**(concreteness), **상호신뢰**(mutual trust)**를 바탕으로 그와 진정으로 함께 있어야**(true presence) **한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진정한 인간인 상담자가 자기의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내담자

의 진정한 진정성을 향해 접근할 때,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은 진정 인간 지성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경지가 될 것이다. 내담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자기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자를 찾아온다. 사실 내담자에게는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내담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고뇌하는 것이다.

3. 왜 <상담, 문학을 만나다>인가?

그렇다면 문학은 상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문학은 허구적 이야기이고 상담은 실제 삶의 이야기**인데 이 둘이 어떻게 서로 만날 수(상호보완) 있는가?

문학상담이 가능한 것은 문학작품 또한 상담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상담과정의 내용이 문학 작품 속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다. 더 나아가 문학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이나 생각이 주를 이루는 상담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다채로운 관점들을 포함한다. 인생의 경험이나 깨달음, 인간의 실존과 같은 문제를 인물, 플롯, 은유, 상징 등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문학은 구체적인 묘사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내담자는 상담공간에서 상담적인 언어로 살아있는 경험이나 구체적인 생각을 상담전문가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대면하고 문학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각이나 깨달음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상담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보다 앞선 세대에게 지혜를 구하거나 부모나 친구들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까이에 상담이 존재하였으며, 상담은 언제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숙고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었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상담, 다시 말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를 통해 진행되고, 상담 연구자들에 의해 구축되어 온 학문적 영역에서의 상담 또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지닌다.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기와 갈등 상황 앞에서 전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상담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과 힘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미 상담은 갈등 사항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해 보이는 상담이 문학을 만나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가장 큰 의문이자 많은 전문 상담가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반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야말로 이 글의 목적이자 앞으로 문학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이에 대해서 나는 우선 다음의 9가지 논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상담과 문학은 인간 존재와 실존에 대해 탐구한다.

문학은 다양한 인물과 갈등상황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요약하고 추상화하면 죽음, 사랑, 고독, 저항, 자유, 욕망, 희망, 동경, 좌절 등과 같은 단어들이 남게 된다. 이처럼 문학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 또는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 등을 탐구하게 한다. 즉 문학은 인간실존의 문제를 언어를 매개로 표현하는 예술로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담 역시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오며, 그러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크게 삶, 죽음, 고독, 자유 등의 문제와 맞물리게 된다. 다만 문학은 그러한 주제가 작가의 쓰기와 독자의 읽기를 통해 구체화된다면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오가는 특별한 말(상담적 언어)을 매개로 그것이 실천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상담과 문학 모두 인간 존재와 실존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문학은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실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학상담은 상담 과정에서 문학작품을 직접 활용하거나 '문학적 정신'을 활용하여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이때 언급되는 '문학적 정신'이란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상담자 또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것을 내담자가 잃어버린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한다.

② 내담자와 작가 모두 문제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문학은 언제나 인간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문학을 창작하는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허구적인 이야기로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문학의 주제를 한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표현되는 작품의 수나 종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작가에 따라 동일한 주제도 달리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의 주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작가의 수만큼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나 방식은 상이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마다 작품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직접 경험하게 될 죽음과 문학 작품에서 표현된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글과 말이 경험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죽음을 경험한 자는 자신의 언어를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문학이라는 허구적 공간을 구축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작가의 이러한 노력이, 또 그 결과물인 문학이 그것을 향유하는 독자로 하여금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과 문학에서 표현된 죽음이 같을 수 없고, 작가마다 문학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상이하듯이, 인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 상황과 마주해도 그것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적인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가의 수만큼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듯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또한 개개인에 따라 다르며 그것은 각각 다른 말로 표현된다.

문학상담은 필연적으로 내담자를 작품 서사의 독자이자 자기 서사의 작가로서 기능하게 하는데, 이때 내담자는 작가로서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사를 읽는 독자로서 나와 다른 수용방식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는 어떠한 문제나 주제를 각각 다르게 표현한 문학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관점과 다른 시각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 밖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작가와 모든 내담자는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시공간을 공유하기에 같은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고 해석한다.

③ 독자와 상담자 모두 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한다.

어떠한 삶의 주제나 문제는 작가나 내담자에 의해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독자나 상담자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독자나 상담자 모두 작품의 서사나 내담자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상담 또한 문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색한다. 그리고 작가에 따라 같은 주제를 다르게 형상화하듯이 내담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독자에 따라 문학이 다르게 읽히고 재생산되듯이 상담도 상담자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의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담은 허구적 공간을 구축하는 문학과 달리 실제 삶을 대상으로 전개되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성하는 특수한 관계와 특별한 언어를 통해 전개된다.

④ 문학을 통해 내담자는 다양한 삶의 주제를 간접체험 할 수 있다.

상담과 문학은 모두 인간 존재와 실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방식 또한 개개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그것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는 문학을 상담 공간에 펼치고자 하는 문학상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물론 허구적인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과 실제 삶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문학의 주제나 담론을 상담 공간으로 옮겨 내담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문학상담가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문학상담 속에서 '상담화'라 정의될 이 같은 과정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경험 세계 밖을 바라보게 하는 은근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문학과 함께할 때, 이 힘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고 문학 또한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학상담에서는 활자화 된 기존 TEXT(문학작품)를 주제별 또는 상황별로 적절하게 분류하여 대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죽음'이라는 주제에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철학, 역사, 문학서들이 있다. 철학서들엔 죽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역사서들엔 시간과 공간(문화적 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있다. 문학서들은 소설, 시, 수필 등 장르에 따라 구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

나의 주제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접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삶의 방식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면, 자신의 경험세계에만 한정된 사고와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 자아와 타자, 세계에 대해 좀 더 확장된 인식을 획득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구성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위기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기회이자 축복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잘 죽기 위해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인간에게 죽음은 단 한 번뿐일 것이며 그것을 체험한 자의 경험은 영원히 전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학상담을 통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학을 통해 그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상담공간에서 그것을 자신의 서사 안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학은 다양한 삶의 주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문학상담은 사후적인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기존의 상담과 달리 문제 예방적인 특징을 지닌다. 문학상담은 개인이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실존적 위기에 대해 미리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훗날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준다.

⑤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학상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다시 말해서 문학을 통해 상담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삶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내담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는 곧 '문학이나 상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연장선이자 문학상담의 효용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 문학과 상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문학과 상담은 각기 다른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도 없다. 또한 지나치게 사적이고 방대하여 그 효과나 결과 또한 개인적으로 상이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우선 문학은 읽고 쓰는 행위가 바탕이 되는 글을 매개로 작품이 생성되는 반면에 상담은 말하고 듣는 행위를 통해 전개된다. 또한 문학은 일정한 플롯이나 배경이 전제된 허구적인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지만 상담은 플롯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또한 우리의 경험 세계에 국한된다.

독서를 통해 '주인공의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문학은 예술적 유희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 없이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니지만 때로 문학은 독자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문학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감정이입, 반성, 성찰, 반발 등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수용하는데, 이러한 수용의 과정은 독자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문학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인문적 성찰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사회적 산물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바흐친은 언어에는 그 언어를 향유하는 특정 역사, 사회, 문화, 집단의 때가 묻어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로 구성된 문학을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회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시하는 가치, 역사, 문제 등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학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를 넘어선 다른 시공간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문학이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듯이 상담 또한 내담자가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내담자가 타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돕는다. 다만 문학은 주인공을 자기화하는 과정 속에서 독자 스스로 그것을 이루었다면, 상담은 전문상담가가 개입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상담과 문학은 모두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문학상담이라는 특별한 만남 이전에도 상담과 문학이 늘 담당하던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상담과 문학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문학상담은 상호협력적인 동시에 발전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학상담 안에서 상담은 문학을 통해 경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문학은 상담을 통해 삶의 현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⑥ 말이 중심이 되는 상담과 글이 중심이 되는 문학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내담자의 특수성이나 상황에 따라 글이나 그림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말을 통해 진행되는 동시에 듣고 말하는 행위를 통해 전개된다. 즉, 상담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는 언어활동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와 달리 문학은 텍스트 안에서 작가와 독자가 조우하기 때문에 읽고 쓰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상담과 달리 문학은 인간의 언어활동 중에서 읽기와 쓰기가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공간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상담은 삶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면서 그것을 다시 말로써 보충해주는 과정이라면 문학은 허구적인 삶의 이야기를 텍스트화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자기주체성, 관계성)을 얻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발화는 사고의 직접적인 표현이거나 현존이다. 반면에 글쓰기는 발화자가 없는 가운데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이며, 발화에 대한 파생적인 재현이자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기호의 기호로 취급되어 왔다.” 글은 말의 보완일 뿐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글을 전개한 루소의 글쓰기를 분석한 데리다는 전통적 관점이 제시한 ‘보완’이라는 단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화가 그 자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보완은 끊임없이 그것을 충족시킬 다른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기에 결국 그것 스스로 본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결국 “텍스트 바깥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데리다의 의견에 우리가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상담을 진행하며 발화만으로는 깊이 있는 상담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며 내담자가 아닌 내담자의 문제에만 몰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상담이 아무리 안전한 발화의 공간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내담자는 자신의 발화를 다른 발화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하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취는 결국 내담자의 말을 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담공간에서 발화에 대한 기록이지 내담자의 생산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의 경험이나 인식은 언제나 언어라는 하나의 기호를 매개로 수용되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과정 또한 언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라는 우리의 언어활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상담의 방법이 새롭게 채택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한 방식으로

써 나는 문학상담을 제시한다. 문학상담은 말을 매개로 하는 상담과 글을 매개로 하는 문학이 결합된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말과 글을 모두 활용하는 상담을 추구한다. 문학상담 안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발화자이자 자기서사를 구축하는 작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과 글의 상보적 만남을 통해 문학상담 텍스트는 말을 매개로 보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텍스트 사이사이에 소리 없는 발화가 삽입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그것을 나누고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언어와 주체의 모습 또한 드러나게 되리라 믿는다.

⑦ 다양한 얼굴을 지닌 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문학이 주인공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라면 상담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자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의존하여 자신을 바라본다. 따라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상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의 역할이나 역량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인간인 상담자 또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나 특정한 관점아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작가와 독자 또한 특정한 담론이나 문화적 영향 아래 위치하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대로만 작품이 창작되고 또 공유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어떠한 담론, 문화, 관점, 사회의 맥락 하에 존재하기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상담은 두 주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시공간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주체는 항상 주변적인 맥락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흔들림을 한 차원 고양된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공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학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예술이자 시공간을 넘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주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상담을 바라보는 것은 문학상담이 인간의 성찰성과 성숙의 과정에 좀 더 주력하기 위함이다. 문학상담은 TEXT는 물론 사진이나 음악, 영화 등 다양한 표현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직 의식화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내 안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만나고 의식화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거나 창조성을 발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에 좀 더 주력한다고 볼 수 있다.

⑧ 개인은 문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

문학상담은 자기 서사를 TEXT로 직접 창작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상에 적합한 다양한 TEXT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아직 언어화 되지 않은 자신의 경험세계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 혹은 내담자 자신의 참 본성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자기 서사를 직접 TEXT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살아낸 삶'을 다양한 언어활동(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을 통해 재현하고 정리하며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살고 싶은 삶'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롭게 자기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는 고귀한 존재로서의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서의 타인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자기

주체성의 확립과 타인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과정은 문학상담의 고유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

텍스트와 텍스트의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듯이 상담 공간에 속한 내담자 또한 문학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구축하고 관점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상담과 문학 즉 문학 텍스트와 내담자의 자기서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발화나 글을 통해 회상되거나 구축된 내담자의 자기 서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⑨ 상담과 문학은 인간에게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상담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위시하여 삶과 죽음의 실존적인 문제까지 다루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분야이다. 그리고 문학상담은 문학을 경유하여 이러한 상담의 영역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문학은 허구적인 삶의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 혹은 어떤 인물이 처한 환경을 정직하고 정확하며 또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문학은 독자들에게 예술적인 감동을 제공하고, 그 은유의 빛으로 독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예술이다. 따라서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고 즐거움, 공감, 카타르시스와 같은 미적체험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는 문학상담 또한 내담자에게 예술적 체험 혹은 미적 체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문학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예술적 체험이란 문학의 미적 가치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집중하여 작품을 읽고 인물에 공감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즐거움을 느끼듯이 성공적인 상담 또한 내담자에게 순수한 기쁨을 체험하게 한다.

문학상담 공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말을 통해 자기 서사를 회상·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 그것을 새롭게 구축하고 확장해간다. 하지만 작품의 서사가 작가의 의도만으로 구성될 수 없고, 작가 스스로도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울 수 있듯이 내담자 또한 자신이 풀어낸 자기 서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객관화할 수 없다.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문학상담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데, 문학상담가는 새로운 언어로 내담자의 서사를 재생산하거나 내담자가 정확하게 발화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줄 수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와 함께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신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자신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순수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상담이 활자화된 텍스트나 자신이 쓴 자기의 서사 텍스트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자신의 가장 좋은 본성을 찾아가는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을 경유한 상담은 기존의 상담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얻게 되고, 문학은 상담이라는 실제적인 삶의 공간에서 공유·실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문학상담의 주어는 상담이지만 상담은 문학과의 상호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만남을 추구한다. 문학상담 안에서 상담과 문학은 서로를 서로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지 않는다. 문학상담은 문학과 상담의 상호 주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주체성 확립과 타인과의 관계성 회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다.

4. Yalom에게서 배우다

문학상담 vs 상담문학

문학상담과 상담문학은 구별되어야 한다.

○ **<문학상담>**은 문학적으로 하는 상담, <문학상담>은 상담에 문학적인 특성을 융합하여 상담의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는 시도이다.
○ **<상담문학>**은 상담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이다.
모든 문학작품은 삶의 이야기이므로 모두 상담문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Yalom의 소설들은** 대표적인 <상담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Yalom의 상담(치료) 과정을 <문학상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Yalom은 스스로를 "치료자"라고 부르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치료"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다.

Yalom의 모든 소설들은 '상담문학'이다. 그가 상담(치료)하는 방법이 '문학상담'이다.

Yalom의 치료방법의 특징은 내담자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심리문제들을 꺼내놓게 하면서 동시에 그 삶의 문제들에 깊숙이 박혀있는 인간의 공통적인 실존적 고뇌를 읽어내어 인간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것이다. 그는 치료과정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국한해서 내담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간 전체로 조망하여 살피면서 문학작품과 철학자의 사상을 두루 인용한다. 그는 치료과정이나 내용에 임상적인 데이터나 통계숫자를 이용하지 않고 환자들이 살아온(살아낸) 이야기와 살고 있는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환자들을 감동시키고, 환자들이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Yalom은 많은 환자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존적인 문제로 고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예리한 감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이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임상가들의 치료와 다른 형태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치료자는 환자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환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언어의 고유한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또한 그는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환자에게 맞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의 치료자로서의 열정과 사랑과 부지런함, 그리고 작은 사례도 놓치지 않고 소설로 만드는 정열에 감탄한다. 그의 소설 속 치료과정에서 주고받는 치료자와 환자의 깊이 있는 대화와 그 대화 속에서 환자가 피상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에서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그의 치료자로서의 통찰력이 부럽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의학적인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나는 상담자로서 교육적인 세

팅에서 내담자를 상담하고 상담자를 교육하고 있다. 그와 나를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그와 내가 인간의 정신세계와 개인적인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존적인 위기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상담자인 나는 정서적인 갈등이나 현실적인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기존의 상담기술이나 새로 소개되는 상담기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담자를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창의적인 상담을 하면서 상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신과의사인 Yalom박사의 치료과정을 상담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 환자와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과 내용, 치료의 최종 목표를 너무 초조하게 다그치지 않는 여유와 자유로움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

5. 문학상담 프로그램의 실제

○ **현재 문학상담은 문학상담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문학상담은 전문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훈련을 문학적으로 하는 상담이다.

○ 문학 텍스트의 **'상담화(counselize) 과정'**을 학습하며 다양한 문학작품(시, 소설, 수필, 잡문 등)과 자신의 이야기를 자료로 활용하여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 보편적인 상담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나와 네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탐색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문학상담 프로그램은 '텍스트 함께 읽기 → 그에 따른 개인 작업 → 자신의 작업을 구성원들과 공유(sharing) 하기 → feedback을 통한 상호교환'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text는 가능한 짧고 함축적이며 많은 이야기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좋다. 시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또는 다른 TEXT)를 읽고 그 시(또는 다른 TEXT)에 대한 자신의 다양한 느낌을 말하고, 듣고, 쓰는 작업이 바로 문학상담의 특수성이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며 통찰과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를 위해서는 facilitator로서의 상담자의 역할과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상담자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문학상담은 해답 없는 질문을 통해 자기와 만나는 과정, 즉, <지금-여기>의 자신을 만나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 과정이다(meet me here and now). 해답이 없는 질문은 반복되는 질문이나 공허한 질문이 아니다. 정답이 없기에 자신만의 답을 창조해가는 과정이며, 복제되는 질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제껏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에 의해 그동안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폐기되면, **내담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창조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인 질문은 '나'를 직면하게 하고 자기 이야기를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자기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거나 숨어진 이야기 속에 담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는 것, 그래서 <지금-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느끼는 것에 온전히 충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학의 상담화**'라고 할 수 있다. 문학상담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시와 짧은 글들을 소개한다.

#1

인디언 기도문

이 기도문은 인디언 수우 족(Sioux)의 것이고, 추장 ‘노란 종달새(Yellow Lark)’에 의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문 번역본을 보내드립니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 둔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 문학상담 프로그램

1. 이 시가 주는 울림은?
2. 내가 쓰는 <나의 기도문>

□ 문학상담적 의미

1.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활동
2. 자기성찰(meet me here and now)

#2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2017년 6월 10일 조선일보 B3 마감 날 문득
한현우 주말뉴스부장

지난 주말 매우 인상적인 결혼식에 다녀왔다. 경기 양평의 한 한옥에서 혼례가 치러졌다. 양가 합쳐 하객 150명가량 모인 작은 예식이었다. 신랑 신부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했고 혼주(婚主)들은 아쉽고 섭섭한 표정을 땡볕에 일그러뜨리며 감췄다.

신랑은 말끔했고 신부는 예뻤다. 신랑 신부 닮은 남녀가 깔깔 웃으며 오가기에 누군가 했더니 신랑의 남동생과 신부의 여동생이었다. 두 사람은 예식에서 결혼반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늘은 푸르게 높았고 가끔 낮은 구름이 볕을 가려줬다. 하객들은 한옥 처마 밑 그늘에서 속닥거리며 낯설고도 궁금한 예식을 기다렸다.

주례는 없었다. 새 부부가 행진할 때 결혼 행진곡 대신 재즈로 편곡된 ‘어스 윈드 앤드 파이어(Earth, Wind & Fire)'의 곡이 라이브로 연주 됐다. 결혼이란 게 땅과 바람과 불의 결합이라는 생각을 했다. 고요히 생명을 키워낼 수도, 땅을 가르고 바다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 말이다.

혼례가 끝난 뒤 신랑 아버지가 인사말에 나섰다. “어머니가 20년 걸려 아이를 남자로 키워 놓으면 다른 여자가 나타나 20분 만에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입니다.”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웃음소리가 컸다. 우디 앨런이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There are three rings involved with marriage. The engagement ring, the wedding ring and the suffering(의역: 결혼은 세 개의 ‘지’자로 요약된다. 약혼반지, 결혼반지, 그리고 이게 뭔지).”

혼주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8년을 사귀었고 바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귀한 며느리를 얻은 덕입니다.” 좌중에서 박수와 휘파람이 터졌다. “결혼이란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라고 그는 말을 맺었다.

피로연이 무르익을 때쯤 신부가 노래를 했다. 꿈꾸듯 그 모습을 보던 신랑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제가 저 목소리를 듣고 반했습니다.” 바보 된 것 맞구먼, 뭘.

□ 문학상담 프로그램

1. 이 글에 대한 느낌
2. 나 자신의 결혼 회상 또는 환상
3. 내 아들(딸)에게 바라는 결혼

□ 문학상담학적 의미

1. 자기성찰
2. 타인과의 관계
3. 나의 세계와 나의 삶

#3

나는 걱정했다

매리 올리버 지음 (류시화 옮김)

나는 많이 걱정했다.
정원의 꽃들이 잘 자랄까?
강이 똑바른 방향으로 흐를까?...
지구가 우리가 배운 대로 돌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지?

내가 옳았을까?
내가 틀렸을까?
나는 용서받게 될까?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
참새들조차 노래할 수 있는데, 나는
절망적이지 않나?

내 시력이 약해지는 중일까, 아니면
단지 상상일 뿐일까?
신경통이나 파상풍,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닐까?

마침내 나는 내가 걱정했던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그만두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침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노래했다.

<나는 걱정했다>에 대한 류시화 시인의 설명 중 일부

삶은 바꾸어야 할 많은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그러나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걱정은 두려움의 다른 형태이다. 농부 시인 웬델 베리는 어느 글에선가 "논쟁하는 대신 새벽에 일어나 이슬에 젖은 산딸기를 따는 것이 낫다."라고 썼다. 이 시도 삶에서 근심과 기쁨 중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한다. 무의미한 고민보다 산책길에서의 발견이 더 소중함을.

잔잔하고 소소한 일상의 '완벽한' 날들을 묘사한 산문집 <완벽한 날들>에서 메리 올리버는 쓴다. “몇 해 전, 이른 아침에 산책을 마치고 숲에서 벗어나 환하게 쏟아지는 포근한 햇살 속으로 들어선 평범한 순간, 나는 돌연 발작적인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행복의 바다에 익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에 가까웠다. 나는 행복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행복이 거저 주어졌다. 시간이 사라진 듯했다.”

그리고 말한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세상에 주어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뉴욕 타임스가 설명한 대로 '단연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인 메리 올리버(1935-)는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 14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28세에 첫 시집을 냈다. 월트 휘트먼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게 영향을 받아 예술가들의 고장으로 불리는 매사추세츠 주 북동부의 항구 도시 프로빈스타운에서 40년 넘게 생활하며 시를 써 왔다. 무엇인가를 주장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이 관찰한 일상의 풍경에서 시를 꺼내는 능력이 탁월한 그녀의 주제는 자연이 주는 영감, 생의 경이로움이다. "숲, 연못, 햇빛으로 가득한 항구, 그것들은 세계 지도에서 작은 파란 점에 불과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의 상징이다."라고 그녀는 썼다. 작가는 글을 통해 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다.

□ **문학상담 프로그램**

1. 이 시를 읽고 나서의 느낌
2. 패러디 시 써보기 (나의 걱정)

#4

가난한 사람의 재산

제임스 럿셀조웰 (1819 ~1881), 미국 시인

가난한 집 자식은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가?
강건한 몸과 씩씩한 마음
튼튼한 골격과 불굴의 정신
유익한 일과 참다운 노력에
자유로 구사하는 믿음직한 두 팔
이런 재산이야말로
제왕이라 할지라도 부러워하리라
가난한 집 자식은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가?
적은 물건을 고마와하는 마음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지위
힘드는 일에 용솟음치는 흥미
콧노래하며 일하는 재미
이런 재산이야말로
제왕이라 할지라도 부러워하리라

가난한 집 자식은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가?
가난한 가운데서 체득한 인내심
가슴 속 슬픔을 참아내는 용기
남을 도우려는 갸륵한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보다 깊은 우정
이런 재산이야말로
제왕이라 할지라도 부러워하리라

아 ~ 가난한 집 자식이여!
자기 자신을 천히 여기지 말라
헛되이 돈과 명성만을 가진 자는
그대보다 훨씬 불행함을 알라

고생함으로써 영혼은 더욱 빛나고
휴식은 달콤하고 유쾌하리라
이런 재산이야말로
가난해도 물려받을 가치가 있으리라.

□ 문학상담 프로그램

1. 이 시를 읽고 난 느낌
2. 내가 물려받은 재산
3.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

[부록]

2017년 1학기 <실존문제와 문학상담> 과제

Yalom의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를 중심으로 실존문제와 문학상담을 주제로 한 학기 동안 강의와 토론과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했다.

<final term paper는 “상담, 문학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형식과 내용과 분량을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주저 없이 발표하도록 했다. 담당교수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명(별명)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4명 모두 너무나 좋은 report를 제출해 주어서 나를 감동시켰기에 오늘 특강 자료에 원문 그대로를 첨부하였다.

상담, 문학을 만나다.

Report #1
상담, 문학을 만나다.

학교 앞 길거리 카페 입구에 칠판으로 된 조그마한 게시판 같은 입간판에 주문할 수 있는 음료의 메뉴가 아니라 짧은 시 한편이 분필로 씌여 있었다.

간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하고는
가나 아니 가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아라

- 피천득, <눈물>

핸드폰 카메라로 친구에게 보냈더니 한 치의 망설임이나 궁금함도 없이 “갔을 거야” 라고 바로 답이 왔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차마 앞에 있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돌아서서 눈물 짓는 여리고 답답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보인다. 한동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우리 한국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예부터 분명하게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나타낼 수 없는 문화라 마음대로 표현도 못하고 쏟아내지도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참다 보니, 한과 회한의 정서로 답답함과 울화병이 많았을 것 같다.
그런 정서적 특성에 물질문명의 풍요를 누리는 대신, 정신적 문화적으로 점차 황폐해져 가

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성장을 담보로 많은 것이 유보되던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감정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를 권장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개인은 자아 상실,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며 많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자신 스스로를 찾고 잘 이해하는 방법 을 찾게 되었다. 상담은 그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찾아와 손을 잡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표현하기 보다는 억압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감정은 느끼고 표현하면 저절로 사라지나,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어딘가 남아 끊임없이 표현되기를 요구한다. 상담의 역할은 표현되지 못한 자기, 억압이나 회피 되었던 자기감정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스스로 발견하는 주체가 된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자기 내부에서 표현하고 끄집어내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마치 촘촘히 짜인 실처럼 컴퓨터가 생활 모든 곳을 연결해서 사람의 다양한 요구를 즉시 만족 시켜줄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 시스템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고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상담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존중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학문이자 일이라 생각한다.

통합적 상담의 접근 중 상담과 문학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상담을 문학과 비교, 접목시킴에 있어 유사성과 차이점, 접점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 중 문학은 자신의 안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힘이 있고,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다움을 찾게 해준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 나를 보고 내안의 '다양한 나'를 인정하고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담은 나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상담과 문학은 다른 경험을 내 것으로 가져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이해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다른 경험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경험, 다른 환경에서의 경험, 우리 내면에서 서로 싸우며 갈등하는 나의 다른 욕구와 소망을 말한다.

상담과 문학이 닿아 있는 접점에서 문학은 내담자나 상담자에게 참 만남의 매개가 되어 주는 것이다.

문학은 모두의 이야기이지만 경험하는 개인에 따라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진다 .

문학과 상담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간격은 크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접점을 찾기 어려운 별개의 세계다. 예술인 문학과, 인문 과학인 상담의 태생적인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문학이라는 성채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작가'라는 절대적인 주체와, 내담자와 소통하며 끝없이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상담자'라는 상대적 조언자의 위상

이 애초에 이질적인 성격임을 기억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작가는 마치 여왕벌과 같아서 자신의 소설 (혹은 시, 희곡)을 추종하는, 혹은 비판하는 많은 일벌(독자)들을 생산할 뿐, 그들의 개별적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무가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 작가는 자신이 의도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던지고 불특정 다수인 대중은 자신의 형편이나 이념, 혹은 단지 성정에 맞게 작가의 소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가의 의도는 (작가의 의도라는 것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것대로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독자 개별의 평가나 감상은 그것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둘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소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매파의 역할을 하는 문학 평론가라는 이름의 일련의 전문 지식인이 끼어들어 소통을 돕기는 하지만, 그들은 인류가 구축한 '문학'이라는 제단에 봉사하는 신관(神官)일뿐, 독자와 저자와의 교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반면, 인문과학의 틀(프레임)을 통해서 '상담'이라는 학문을 조망했을 때, 상담의 객체와 주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왕벌 같은 작가와 비교했을 때, 상담자는 단지 한 명의 자손을 생산하는 인간과 같다. 오랜 시간 보살피고 소통해야 할 자신의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는 직업적, 인간적 채무의식을 가지는 운명이다. 상담자는 소설을 써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자가 아니며, 개별적 내담자를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내담자 스스로 동굴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도우미라는 점에서, 개별적 독자의 정서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메시아적 메시지를 던지는 작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작가와 달리 상담자는 조력자이고, 친구이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어느 지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상담과 만날 수 있을까 ? 그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지성사는 크게 두가지 줄기, 인문학적 성찰과 자연과학적 발견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했고, 그것이 다시 각 학문간의 세분화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들어 크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바로 통섭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간의 상호교류와 통합을 모색하는 쪽으로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흐름이 학문 연구의 장에도 밀어닥치는 시대인 것이다. 굳이 통섭이라는 어려운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각각의 학문이 강박적이리만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 처음의 시원 (始原)으로 돌아가 본다면,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문학과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자. 문학이던 상담학이던, 애초에 시작은 모두 인간,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갈등과 모순을 직시한다는 점,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결국에 지향한다는 점에서 둘은 놀랄 만큼 닮았다. 서로에게 유사점이 많을수록 상호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학과 상담간의 매치(match)는 폭발력이 크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 그 다음 문제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어떤 한 학문이 나머지의 수단이 되거나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가령 상담의 수단으로서 문학작품을 내담자에게 소개하거나 작품 속 상황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시도는 이해하는 단편적인 도움은 줄 수 있으나 문학과 상담의 진정한 만남이나 접점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피상적일뿐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오해

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건 독서 치료나 글쓰기 지도 정도일 것이다. 그 보다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삶에 대한 관점이나 인생을 이해하는 통찰을 내담자의 마음 속에 내재화시키려는 노력과 훈련이 오히려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질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담자의 자리는 따뜻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훌륭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막중한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담이나 문학이나 인간에 대한 것이므로 시대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문화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음 을 인정하고 어떤 내담자도 붙들어 줄 수 있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문학과 상담의 만남이라는 주제는 생각만큼 개념화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희미하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닿지 못할 목표도 아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미심쩍었던 바로 그때에, 햇살에 안개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걷히듯 그렇게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꾸준한 학문적 모색과 겸손한 노력이 그 때를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

****

Report #2

상담, 문학을 만나다.

문학이 무엇이기에 상담이 문학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학의 정의가 간단하지 않고, 상담의 정의도 상담자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담과 문학이 만나 연결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의외로 간결한 것 같다. 문학의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정의는 “문학이란 언어 매체를 통한 인생의 표현” (p. 250)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일상의 언어와 다를 바 없는” (p. 251) 인생을 표현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문학의 주제는 인생이며 그 주제를 해석한 것이 문학이라는 데에 반대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담과 문학이 겹쳐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오가는 ‘언어’ 없이 이루어 질 수 없고, 상담의 근본 주제는 언제나 ‘인생’이며 그 인생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 표현에서 파생된 수많은 일과 감정을 상담에서 다룬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상담과 문학은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만남이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면관계와 조력관계 및 동맹관계와 전문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기에 상담자와 내담자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관계’는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와 비슷하게 문학에서 역시 문학작품 속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문학은 “어느 한 개인의 자족적인 감정의 토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하는 주체들이 대화적 관계” (p. 258)에 있기에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문학을 이야기 할 수 없다. 첫째로, 문학을 창조하는 주체, 즉 작가는 늘 누군가를 지향하기 마련인데, 이는 작품 속의 인물 혹은 작품 밖의 독자 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문학에는 “다양한 인간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들 인간의 삶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늘 관계 속에, 즉 대화적 관계 속에 있다.” (p. 258) 즉 문학은 작가, 문학작품 속에 존재하는 인물, 독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현되고, 그러한 복합적이며 대화적 관계는 상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와 닮아 있다. 상담에서의 관계 역시 대화적이며 복합적이다. 왜냐하면, 상담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대화 없이 상담은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복합적 양상을 다루는 상호작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상담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히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의 변화 및 성장에 초점을 둔다. 내담자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성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문학작품 읽기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자 스스로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과 비슷하다.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 성숙과 기능의 향상을 돕기 위해 숙련된 전문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내담자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담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얻는 자각, 성찰, 통찰을 충분히 경험하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을 대하는 독자가 능동적이며 주체적일 때 문학작품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한다.” (pp. 353-354)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자와 그와 같은 내담자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내담자가 상담에서 문학작품을 대할 때 얻는 효력은 상당할 것이다.

문학은 수많은 질문 속에 인간이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문학은 곧 인간에 대한 탐구로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물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p. 263) 상담에서 역시 질문과 깨달음은 상담자와 내담자 양자 모두에게 존재한다. 상담은 질문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담자의 성찰과 통찰을 각성하게 하는 다양한 탐색적 심오한 질문들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오간다. 질문은 특히 상담자에 의해서 던져지는 경향이 강하고, 내담자는 상담자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깨달음을 얻곤 한다. 그러나 깨달음이 단지 내담자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내담자의 도전적 질문에도 대면하게 되어 그 질문들에 답하고 다시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역시 깨달음에 도달하기도 한다. 작가가 문학작품 속으로 몰입하여 끊임 없이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듯이 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세계로 기꺼이 뛰어들어 상담자 스스로에게 혹은 내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문학과 상담 모두 인간에 대한 탐구이며 질문과 깨달음은 연속성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을 통한 간접적 경험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귀중하다. 인간이 태어나 삶을 마칠 때까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접체험은 지극히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지만 문학은 그러한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간접경험을 선사한다. “문학작품을 읽지 않고 간접체험을 통한 세계인식과 삶의 총체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작품에 형상화된 현실세계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삶의 총체상을 이해하며 내면화하여 자기화한다.” (p. 366)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직접체험만을 가지고 상담을 다루기에는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폭이 좁고 빈약하며 제한성을 지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간접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접하게 되는 간접경험을 자기화 하기에 문학만큼 적절하고 좋은 자료는 없다. 문학작품의 텍스트는 수많은 인간사와 일상사를 통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

는 과정을 묘사 혹은 함축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동일시하며 공감하기도 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며 삶의 한계와 편협성을 극복해 낼 수 있기도 하다. (p. 367)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란 한 인간으로서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나는 누구인가, 즉 내가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존재의 주체성과 가치관을 찾아가는 희망적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희망적 추구는 과거 기억을 통한 반추, 현재의 앎과 실천, 미래의 긍정을 뜻한다. 이처럼 문학을 통한 간접체험과 상담의 합체는 상담에서 의미 깊은 효력을 나타낸다.

상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즉 측정 불가능한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의 창조적 힘이 존재한다. 상담이 수량화되어 측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 마음의 변화와 성장, 점진적 발달, 치유의 과정을 가시화 내지 공식화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상담이 단지 결과중심이기 보단, 과정중심을 지향하며 상담과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상담은 변화와 성장에 중점을 둔 성찰과 통찰의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상담은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이미 살아온 삶,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재구성 및 재창조하게 하여 그의 사고와 감정을 확장시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킨다. 문학작품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화된 세계를 다루며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관념상으로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존재조건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세계를 만듦으로써 우리들 삶의 공간을 확장하는 일”(p. 7)을 돕는다. 그것이 곧 문학적 상상을 통한 자유이며 그 자유에는 분명 재창조된 삶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재창조된 삶이란 상담에서처럼 치유, 성장, 변화, 발달과 같은 뜻을 품으며 현실에서 그 뜻을 표현하여 드러내는 실천적 성격을 지닌다.

문학작품으로부터 진정으로 내면화되어 자기화된 체험을 하려면 “시를 읽더라도 천천히 상상하며 읽어야 하고, 반복하여 읽어서 시의 리듬이 생의 체험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체를 읽고 다시 부분을 음미하고, 부분과 부분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 가운데 문학적 감각은 진정한 체험으로 화한다.”(p. 11) 문학작품을 상상으로 접하며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하여 읽어내고 진정한 체험을 하는 과정은 상담의 과정과도 흡사하다. 문학 텍스트가 주는 울림 안에서 반복하고 음미하며 재구성하여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넘나드는 과정은 상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가 제외된 상담에서도 그러한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 상담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가 언어로 표현하며 상담의 어느 한 부분과 부분 혹은 부분과 전체를 넘나들기를 반복하고 음미하며 재구성,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담 자체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문학적일 수 있는데, 상담이 문학을 만난다면 그 둘 사이의 친밀한 상호적 관계는 보장된 셈이다.

* 참고문헌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2014). 문학의 이해. 서울: 삼지원.

Report #3

상담, 문학을 만나다.

조그만 횃불을 하나 들고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나는 이제 막 발을 들여다 놓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뿐, 동굴 안은 따뜻할지 차가울지, 웅덩이가 져 있을지 드러눕기 편한 공간이 펼쳐져 있을지, 깊이가 얼마나 될지, 넓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이 조그만 횃불로 동굴 안을 다 비춰볼 수 있을까. 동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상담이 문학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연한 것처럼 지금 이 글도 어떻게 진행해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 우선 자유형식으로 글을 써도 된다고 했으니 그동안 문학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나 고민, 의문점 등을 써내려가고 상담자로써 문학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만남 후 문학을 상담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을지, 초대한 후 어떻게 대접해야할지 등을 고민해보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학상담에 대한 기대와 고민

일단 문학상담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야 내가 문학상담을 계속 탐구해나갈 이유를 다져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상담이 당연히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애초에 문학 또한 프로이트와 융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프로이트와 융 또한 자신들의 이론을 성립하면서 문학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쓰기 전 융에게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데미안이란 작품 자체도 융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애초에 상담과 문학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사이는 서서히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래 문학은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예술이고 상담 또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조금 바꿔 말하자면, 상담 또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둘에게서 공통점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을 최대한 찾아내어 정리해서 개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그래야 문학상담을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을 위한 발판 같은 것이 마련될 것이다. 사실 문학상담하면 '문학'이라는 단어에 겁을 느껴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학상담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함 때문에 더더욱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상담이 발전되고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입문하는데 조금 더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학상담에 대한 기대는 일단 일반 상담처럼 자신을 성찰 및 통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나아가 내담자가 상담 장면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문학상담이 아닌 다른 상담에서도 목표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벗어나고 혼자서 스스로 성찰 및 통찰을 하는 순간에 문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다. 만일 내담자가 내가 생각한대로 문학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성찰 및 통찰을 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문학을 찾게 되며 나아가 문학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학까지 사랑하게 된 내담자면 그 어떤 상담을 받은 내담자보다 더욱 성장하고,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학의 그 깊고 넓은 세계와 상담의 그 따뜻하고 수용적인 세계를 만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문학상담에게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통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담자에게 길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상담의 길을 걸어가기에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고, 내가 과연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다. 가장 세속적인 걱정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직업적인, 금전적인 걱정이다. 문학상담이 언젠가는 자리가 잡힐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지만 문학상담가라는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고 내담자를 모을 수 있는 게 언제쯤일까. 물론 문학상담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담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닐 것이지만 왠지 현 상황에서 문학상담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학상담만을 위한 연구만을 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부담감이 느껴진다. 그렇기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든 금전적 수단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문학상담의 길을 걸어가기에 고민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세속적인 고민이고 가장 개인적인 고민이다.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상담의 결과를 통계 혹은 가시적인 성과물로만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나라에서 문학상담의 성과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질적 연구를 통해서 충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학상담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많은 상담자와 상담사례들을 쌓고 내담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충분한 증거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원래 문학은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도를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문학을 상담과 접목시키려면 상담자도 굉장한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름 고민을 얘기하고 풀어나가는 동안 결국 다시 똑같은 고민에 당도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우리는 그런 오랜 시간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 것인가.

문학상담의 현장에 대한 상상

현재 문학상담은 집단상담에서만 적용되어서 많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인상담에도 문학상담이 적용되어야 문학상담이 더 널리 퍼지고 더 발전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름 문학상담이 개인상담으로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려고 한다.

초기 상담의 모습은 다른 상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문학상담의 모습은, 얄롬의 사례를 참고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매회기마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뭐가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적어서 상담자와 공유를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매 회기 내담자의 글을 그 자리에서 읽고 글에서 볼 수 있는 내담자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다. 만일 처음부터 글을 쓰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는 내담자라면 책을 읽고 그에 대해서 느낌을 상담자와 공유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아무리 문학상담이라고 한다고 해도 상담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더 중요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 또한 중요하지만 다들 알

다시피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드는 일이고 또한 글을 읽어내어 그 사람의 심경을 파악한다는 것도 굉장한 내공이 필요한 일이다. 상담자가 문학적이 소양이 풍부하다면 내담자에게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내담자의 글을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이지만, 상담능력이 있어야 그런 상담 또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자, 문학을 만나다

상담자는 문학을 어떤 식으로 체험해봐야 할까. 상담자는 문학작품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 상담자는 글쓰기 실력이 출중해야 할까. 상담자는 상담 현장에 문학을 초대할 수 있을까.

상담자로써 문학을 만난다는 것은, 문학상담을 만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의문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학에 다가갈 때, 문학작품을 읽을 때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이라고 하면 마치 엄청나게 지적인 활동을 하거나, 높은 교양을 쌓는 행위처럼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많이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문학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문학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다. 문학은 인간과 독자를 위해 있는 것이지 문학가나 문학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자 또한 문학을 상담가의 눈으로써 보거나 상담의 도구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닌, 그저 개인으로, 독자로 문학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후 문학의 맛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학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학작품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한 작품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 열권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 문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식 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시 되는 것 같다. 지혜라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문학적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인 것이다. 진솔한 경험 없이 열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읽더라도 진솔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어쩌면 진정으로 문학을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담자 또한 글을 잘 쓴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역시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상담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잘 함으로써 상담 현장에 내담자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문학을 잘 초대하는 것이, 상담자가 글을 잘 써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상담으로부터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문학이 그렇듯이 상담 또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제 나는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며 동굴 안을 밝혀나갈 것이다. 이 어두컴컴한 동굴은 무지막지하게 커서 죽을 때까지 다 돌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가는 데로 길이 만들어질 것이며, 내가 가는 길이 밝혀질 것이다.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 동굴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래본다.

Report #4

상담, 문학을 만나다.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처럼 소박하고 평온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역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으며
당신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결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

라이언 홀리데이, 『에고라는 적』 中

I. 상담. 相談. 서로 상, 말씀 담.

1) 국어사전 상의 의미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나 윗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는 답을 찾는 것’, 혹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함’.

2) 교육학용어사전 상의 의미
카운슬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행동양식을 증진시키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

상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모든 행동변화나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상담은 자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③ 합리적 계획, 문제해결, 의사결정, 환경적 압력에 대한 대응, 일상 행동습관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상담은 흔히 심리치료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나 상담은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서 심리치료는 신경증이나 정신병 같은 이상행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리치료와 같이 그 이론적 배경이 정신분석학·행동주의 심리학·인지심리학·생태심리학 등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대상문제에 따라서 성격상담·학업상담·진로상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개인상담·가족상담·집단상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 내가 정의하는 상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수많은 갈등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마주하는 갈등이 어떨 때는 쉽게 극복되지만, 때로는 내 삶 전체, 내 존재 자체를 흔들 만큼 큰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런 고통은 마음에 깊고 큰 상처를 남긴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상담이다. 내담자가 힐링(healing)이 되는 과정, 상처가 난 부위가 아물고 딱지가 앉고 그 딱지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면 새살이 돋은 자리는 더 단단하게 여물게 된다.

상담자는 그런 모든 과정의 옆에서 내담자가 힐링이 되는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며 그의 가디언의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다. 때로는 따뜻한 엄마가 되어 주었다가,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이 되었다가, 때로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치부를 보이고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II. 문학. 文學. 글월 문, 배울 학.

1) 국어사전 상의 의미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음.

2) 내가 생각하는 문학

문학은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 예술은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것을 작품으로 담아내는 영역이다. 그 중 문학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영역이다. 언어는 무엇일까? 언어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중 그 마음을 가장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림이나 춤, 음악은 작가의 마음이 추상적으로 녹아 나타나지만 말과 글은 그 마음을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히 표현해 낼 수 있다.

문학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평론가, 작사가 등 다양하다. 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독자들은 감동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 작품이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어떻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까? 작가와 독자,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인간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이다.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비교적 정확하게 글로 녹여내고 이것이 독자들에게 스며들며 작가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랑 노래가 자신의 노래 같고, 실연을 당하면 이 세상 모든 이별 노래가 자신의 노래 같다. 어쩌면 작사가는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지 모르겠다.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자신의 마음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작사가가 사랑을 해 보았고, 작사가가 이별을 해 보았기 때문일 확률이 크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어려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던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양부모가 사고로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났다. 그를 떠났다. 그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과도 단절한 채 방에서

몇 달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친구에게서 받은 책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

[이별.

가족을 잃은 적 있다. 그들이 떠남에 슬퍼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오롯이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냈다. 한참을 자다 깨어났을 때 유난히 환한 햇살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왔다. 뺨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비추기엔 아까울 만큼 깨끗한 햇살이었다.

그 순간, 무심히 깨달았다.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실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날 떠난 이들을 향한 투정이라는 것을.

난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자학하고 있었다.

난 아직도 올바른 슬픔에 대해서 모른다. 다만 조금 더 노력할 뿐이다. 떠난 이들이 보기에 내가 올바르게 슬퍼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자신이 느끼는 슬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자학인 건가.

마이클은 아주 오랜만에 생각이라는 걸 하며 무심결에 그 책을 집어 들었다. 책의 가장 앞쪽을 펼쳐 처음부터 읽었다. 그러다 다시 이별이라는 대목을 만났을 때, 눈앞이 뿌옇게 변했다.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페이지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힘겹게 그 페이지를 넘긴 후에도 마이클은 눈을 떼지 못했다. 작가의 한 문장이 자신을 오래전의 과거로, 최근에 있었던 순간으로, 즐거웠던 때로, 슬펐던 때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염없이 추억을 헤매다 보니 책이 끝났고, 마이클은 비로소 오래간만에 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기적을 보다』(서혜은). 중에서

==

그리고 그는 운명적으로 그녀와 만나게 된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다.

===

마이클이 잠시의 시간을 두고 대답했다.

그는 식사하는 동안 자신이 에세이를 읽었을 때의 느낌에 대해 말했다. 대부분 적이 절박하게 느꼈던 감정을 공감하고 있었다. 적은 그의 삶이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나의 문장을 읽고, 같은 통증을 느낀다는 건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이니까.

“기적씨 책을 볼 때마다 많은 위안을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기적을 보다』(서혜은). 중에서

===

이렇게 독서란, 글을 읽는 행위는, 그 글을 쓴 작가와 그 글을 읽는 독자가 그 글의 세상 속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다.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그 어느 때라도 내가 느끼는 것을 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을 산고의 고통에 비유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의 고통이다. 왜 고통일까? 내 마음을 글로 자세히 묘사하려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마음을 깊이깊이 들여다보고 단어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야 한다. 깊은 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생각을 글로 잡아내는 작업은 쉽지 않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감정과 그 감정 뒤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자신의 심리를 잡아내는 것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때로는 고통에 비유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III. 상담, 문학을 만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함께 풀어주기 위해 상담의 전문적인 지식을 깊게 공부해야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상담은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순간이므로 폭넓은 사고,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상담자도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해 볼 수는 없다. 이 때 상담자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바로 문학이 될 수 있다. 더 넓게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문학에 대해 더 얘기해보고자 한다.

문학의 가장 큰 장점은 간접경험이다. 수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그들의 글을 통해 접하면서 우리는 그 글을 통해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내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주연, 혹은 조연, 혹은 엑스트라로, 때로는 감독, 카메라 감독, 혹은 음악감독으로라도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이미 그 글에 동화되어 간다. 또는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할 수도 있다.

상담자가 새로운 텍스트를 만나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영역을 넓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내담자의 고통에 감히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된다. 상담자는 신이 아닌 인간이므로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 내담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상담자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통은 때로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도대체 빠져 나갈 구멍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이다.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상담이다. 나도 모르고 있던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있던 나를 만나는 여행. 그런 여행 중에 내담자의 마음을 대변해 놓은 어떤 텍스트를 만나게 되면 이 여행에 그 텍스트를 쓴 작가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상담자도 내담자도 표현하지 못한 내담자의 저 밑바닥에 깔린 힘든 그 마음이 작가가 쓰윽 내민 그 텍스트로 인해 드디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바뀌며 드디어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가 떠오르게 된다. 이정표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도 좋다. 그러나 그런 여행은 내 안에 긍정의 힘이 가득할 때 힘을 발휘한다. 지금 하는 이 여행은 빛이 보이는 작은 틈을 찾아 빨리 탈출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정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처럼 소박하고 평온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역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으며
당신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결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

『에고라는 적』中에서. 라이언 홀리데이.

이 글 말머리에 소개한 시이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자신의 책에 왜 이 릴케의 시를 인용했을까?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 시가 바로 상담이 문학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은 단순히 서로 이야기하는 것, 서로 말을 나누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이 '이야기'는 나의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담자의 아픔을 상담자는 전문적인 상담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런 전문가적인 시선 밑에 수많은 경험이 담긴 상담자의 이런 문학적인 텍스트가 깔린다면 이 텍스트는 내담자의 문제를 함께 찾아가는 가디언인 상담자와의 사이에 큰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릴케 시를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떠올렸다. 상담자도 내담자도 사람이다. 모두 고통을 겪으며 성장한다. 상담자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내담자의 고통을 담아줄 수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상담 중에 자신도 모르게 상담자의 전능함을 기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담자에게 질투를 할 수도 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자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며, 단지 나보다 그런 고통을 먼저 겪어봤다는 것-이것은 직접경험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학을 통한 간접경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로를 작가의 이런 시를 통해 받는 다는 것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여행 중에 함께 동행하는 또 한 명의 동행인, 작가. 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로 담아내는 능력이 있는 이런 작가가 이 여행에 동참한다면 상담 장면이 좀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며 더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